

현대·기아차, 올해 판매목표 754만대... 전년비 5% ↑

현대차 458만대 기아차 296만대
국내 판매 전년대비 소폭 감소

현대·기아자동차가 올해 글로벌 판매 목표를 753만6000대로 설정했다. 내수에서는 다소 주춤하겠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을 각각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719만3337대)보다 5% 가까이 많은 수치다. 2018년(740만1399대)보다도 소폭 늘었다.

브랜드로는 현대차가 457만6000대, 기아차가 296만대를 올해 판매할 수 있

〈현대·기아자동차 2020년 판매 목표〉

	2020년 판매 목표	내수	해외
현대자동차	457만6000대	73만2000대	384만4000대
기아자동차	296만0000대	52만0000대	244만0000대
합계	753만6000대	125만2000대	628만4000대

/전자공시

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년과 대비해 현대차는 3.5%, 기아차는 6.8% 더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국내에서 125만2000대, 해외에서는 628만4000대 판매를 기대했다. 국내에서는 전년(127만3542대)보다 소폭 줄어드는 반면, 해외에서는 전년(593만1290대)보다 5.9%를 더 많

이 팔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 시장은 브랜드 모두 판매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대차가 73만2000대로 전년(74만1842대)보다 1.3%, 기아차가 52만대로 전년(53만1700대)보다 2.2%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신 해외 시장에서는 모두 뚜렷한 성장이 점쳐졌다. 현대차가 384만4000

대로 전년(368만802대) 대비 4.4%, 기아차가 628만4000대로 전년(593만1290대) 대비 5.9%나 더 팔 수 있다고 추정됐다.

앞서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연구소는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0.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선진국들이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 등으로 후퇴

하는 가운데, 신흥시장이 비로소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현대기아차가 예상하는 판매량 성장률은 시장 전망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반면 연구소가 내수 시장 1.2% 성장을 기대했던 것과 반대로, 올해 내수 판매 목표는 오히려 전년보다 낮은 상황이다.

현대기아차는 아반떼와 G80, K5 등 주력 신차 론칭과 신흥시장 CKD 확대와 함께, 북미시장에서는 SUV와 제네시스 등 고수의 구조, 유럽시장에서는 전기차 판매 강화 등으로 브랜드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신년사

“실천 통한 행복경영 실행에 힘 싣겠다”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박성하 SK(주) C&C 대표이사(사진)는 2일 신년사를 통해 “회사는 새해에 각자 대표 체제를 도입하여, 지주회사와 사립회사 각각의 전문성을 강화하게 됐다”며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박 대표는 “올해는 그룹의 딥 체인지 2020에 발맞추어, 우리 회사도 새로운 경영관리체계(SKMS)의 실천을 통한 행복경영의 실행에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회사의 비전과 정체성 구체화 ▲국내외 선도기업과의 협업 강화 ▲구성원 주도의 행복경영 실천을 중점적으로 실행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구조도 개선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중심의 비즈니스모델(BM)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BM 혁신을 위해 사회적가치(SV)도 적극 추



구할 것이며, 이러한 BM 혁신을 통해 회사의 성장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용·복합화 환경 하에서는 산업별 선도 기업들이 보유한 핵심역량 기반의 상호 협력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회사를 활기 넘치고, 실행을 중시하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겠다”며 ▲구성원의 성장을 위한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적극 지원 ▲구성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환경 조성 ▲구성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자리 마련 ▲자율책임경영 정착 등을 약속했다.

/구서용 기자 yuni2514@

기술 총집합 SUV 등 신형차 잇단 출시 예고

현대차 ‘제네시스’ GV80 첫 공개
기아차 SUV, 카니발 플체인지 출시
르노삼성 기대치 높은 ‘XM3’ 선택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 국내 완성차 업계가 자사 기술력을 총집약한 신형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다. 내수는 물론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새해 첫날 첫번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80을 공개하고 출시 초읽기에 돌입했다. 또한 기아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등도 올해 신형 SUV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어 올해도 SUV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 브랜드는 후륜구동 기반의 프리미엄 대형 SUV GV80 디자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차명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제시하는 다재다능한 럭셔리 차량의 의미에 대형 차급을 뜻하는 숫자 ‘80’이 더해져 완성됐다.

전면부에는 제네시스 고유 문양인 ‘지 매트릭스’가 라디에이터 그릴 문양뿐 아니라 헤드-리어 램프, 전용 휠, 내장 등 곳곳에 반영돼 고급감을 강조했다. 측면부는 완만한 포물선인 ‘파라볼릭 라인’과 야생마의 탄탄한 다리 근육을 연상시키는 ‘에슬레틱 파워 라인’의 극적 대비로 차체의 볼륨감과 역동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또 국산차 역대 최대 직경의 22인치 휠을 적용해 압도적인 볼륨감을 자랑한다.

내부 구조는 안정적인 시야 확보와 편의성 강화에 주력했다. 시트 높이뿐 아니라 센터콘솔과 암레스트를 아우르는 주요작부를 상향시켜 운전자가 높은



르노삼성 XM3.

곳에 위치해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커맨드 컨트롤’ 배치를 구현했다.

차량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결정짓는 최첨단 사양은 GV80에 총집약됐다. 측면 충돌 시 탑승자간 2차 충돌을 방지하는 앞좌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최초로 적용됐다. 최고 수준의 능동형 안전 기술과 차세대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술도 탑재됐다. 기존보다 강화된 전방 충돌방지 보조 기술이 적용돼 교차로 좌·우측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 감지시 제동을 지원하고, 전방에서 보행자 충돌 위험시 자동으로 회피 조향을 도와준다. 특히 세계 최초로 주행 중 발생하는 노면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키는 능동형 노면소음 저감기술(RANC)이 적용돼 고급차의 정숙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또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최초로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 제네시스 카페이(차량 내 간편 결제 기술),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필기인식 조작계), 강화된 음성인식 기술 등이 포함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적용됐다.

기아차는 2종의 SUV 차량과 카니발의 플체인지 모델을 잇따라 출시한다. 상반기 출시를 앞둔 쏘렌토는 신규 플랫폼을 적용할 방침이다. 파워트레인에는 2.0L 디젤, 2.5~3.5L 가솔린 엔진이



제네시스 GV80 전측면 모습.

장착되며,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도 판매 예정이다. 스포티지와 카니발 역시 3세대 신규 플랫폼을 장착, 첨단 ADAS 사양과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장착한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신차 부재로 판매 감소를 겪은 르노삼성은 2019 서울모터쇼 공개 후 가장 많은 기대를 받은 ‘XM3’를 출시, 반응에 나선다. XM3는 세단과 SUV의 장점을 결합한 크로스오버(CUV) 차량이며, 기존 국산차에서 볼 수 없는 세련된 내·외관 디자인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출시 예정 시기는 올해 1분기로 르노삼성 부산공장에서 생산된다. 또 SM6와 QM6는 상품성을 강화한 모델이 출시된다.

대형SUV 트래버스와 픽업트럭 콜로라도 출시로 지난해 하반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한국지엠은 올해 SUV 라인업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한다. 한국지엠은 올해 1분기 트랙스와 이퀴닉스 사이에 위치한 준중형급 SUV 트레일블레이저를 출시한다. 이 차량은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생산되며 내수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다는 점에서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운 기자 ysw@

“초격차 기술 확보, 도전적 조직 구축해야”

전영현 삼성SDI 사장

전영현 삼성SDI 사장(사진)이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올해, 100년 기업을 향한 초 격차 기술을 확보하자”고 강조했다.

삼성SDI는 2일 기흥 사업장에서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열고 새해를 시작하는 각오를 다졌다고 밝혔다.

전 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의 출발선에 서 있다며 과거 50년 디스플레이 세계 제패의 영광을 넘어 첨단 소재와 에너지 기업의 정상에 서자고 말했다. 이를 위한 실행 과제로는 ‘초격차 기술 확보’와 ‘도전적인 조직문화 구축’ 등을 꼽았다.

전영현 사장은 “삼성SDI의 핵심 역량인 고용량·고출력의 소재 기술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응용한 차세대 신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해야 배터리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전자재료 사업은 고부가가치 아이템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차와 웨어러블, 첨단소재 시장을 리드하려면 관련 업계가 넘볼 수 없는 기술을 갖춰야 정상에 설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특히 전 사장은 차별화 포인트로 품질과 안전성 기술을 제시했다. 이어 전 사장은 “자율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 중시 경영과 강한 실행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더 높은 윤리 의식과 준법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한편 삼성SDI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 엠블럼도 제작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삼성디스플레이 4K OLED 패널 ‘SGS 인증’ 획득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달 노트북용 4K OLED 패널로 글로벌 인증업체 SGS에서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삼성디스플레이 노트북

용 OLED 패널 2종(13.3인치, 15.6인치)이다. 콘텐츠 창작과 게이밍 2개 부문에서 인증을 받았다. SGS는 화질적 특성이 IT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인 콘텐츠 제작 및 1인 방송, 온라인 게임에

최적의 디스플레이 환경을 제공한다고 제품을 평가했다. 제품 2종은 색역역 DCI P3 100%, 최저휘도 0.0001니트 및 응답속도 0.2ms 등을 달성해 평가 기준을 충족한다. 지난해 이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이 판매를 시작했으며, 올해에는 풀HD급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